

21세기 교육을 준비하는 서울教育大學

金 基 周

(서울敎大 學長)

1. 初等敎員 養成의

중심대학으로 發展

우리 대학은 광복 이후 민주시민 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개교된 국민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1946년 5월 경기공립사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교하였다. 그 뒤 '49년 10월에 국립 서울사범학교로 개칭하여 초등교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계속 맡아 왔다. 처음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는校舍가 미처 마련되지 못해 경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등에 가교사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48년에야 비로소 성동구 행당동(현 덕수상업고등학교 자리)에 교육의 터전을 제대로 세울 수 있었다. '53년 3월에는 예비교사들의 敎育實習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서울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를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교원양성학교로서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62년 3월에는 국민학교 교원양성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열망에 힘입어 서울사범학교를 2년제 대학 과정으로 개편하여 서울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1년 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서울교육대학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같은 해 서

울교육대학 부설 초등교육연수원을 개원하여 수도권 지역의 국민학교 및 유치원 교원의 현직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68년 8월에는 갑자기 불어난 국민학교 교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교육대학 부설 임시 국민학교 교원양성소를 설립하였으나 그 해 10월 이를 다시 교원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69년에는 제201학군단이 창단되어 교육대학 재학생에게 소정의 군사교육(RNTC 과정)을 이수한 뒤 현역 복무를 시키지 않고 바로 교직에 전념케 함으로써 남자 교사들의 교직에서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77년 2월에는 지금까지의 행당동 캠퍼스 시대를 마감하고 한국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서초동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신축 교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81년 3월에는 교육법 중 개정 법률 제3370호에 의해 지금까지 2년제 대학이었던 서울교육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개편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학교 교사 양성대학의 4년제 교육대학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85년 1월에는 야간제 및 계절제가 개설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배출된 2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에게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함으

로써 더욱 질 높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등 교과교육에 대한 더욱 탄실한 기반을 다지게 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91년부터는 지금까지의 RNTC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학생 사관후보생 과정(ROTC)을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敎員은 현재 정교수 36명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법정 정원 대비 75.2%의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다(부속국민학교 교원의 경우, 법정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을 계산에 넣으면 우리 대학 및 부속학교의 전체 교원 확보율은 79.6%에 이르게 된다). 교직원 확보율은 일반직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 232명으로 법정 정원 대비 86.2%의 높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학생 현황을 보면 주간이 2,063명, 계절제 317명 등 모두 2,38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생은 속성과·강습과·연수와 졸업생이 590명, 부설 초등교원 양성소 428명, 사범학교 본과 2,976명, 2년제 교대 7,936명, 4년제 교대 5,958명 등 총 17,888명의 국민학교 교사를 배출한 바 있다.

2. 敎育目標와 敎育課程의 특성

우리 대학은 국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대학으로서, 실철 또는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학문만을 연구하여 산업 사회의 중견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일반대학과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우리 대학은 확고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교사 전문성을 한 몸에 지닌 전인적 인격을 구비한 敎育者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학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은 교직이라는 전문직업을 목표로 제 2세 국민을 양육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길러 국민의 사표로서 한국 교육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마쳐 봉사할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이념 아래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 유능한 교사로서의 건전한 사상을 구비하고, 지도적인 인격과 기능을 가진 국민학교 교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첫째,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韓國魂을 배양한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배양한다. 셋째, 교사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인격을 도야하고 敎育愛에 불타는 헌신적 생활 태도를 확립시킨다. 넷째, 아동의 성장·발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다섯째, 국민학교 각 교과를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 지도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여섯째, 보다 나은 교직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생활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일곱째, 교직의 사명과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하여 교육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학과는 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敎育課程은 교양·전공·자유선택 과정으로 대별되며, 교양 및 전공과정은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된다. 우리 대학의 학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50 학점이다. 교양과정에 52 학점, 전공과정에 92 학점, 자유선택 과정에 6 학점이 배정돼 있다.

교양과정은 전인적 교양과 교과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기본교양을 필수로 하고 제 2외국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 실업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1~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전공과정은 초등교원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지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기본과정, 교과교육과정, 심화과정 및 교육실습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다른 대학의 전공과정과 특히 다른 점이다. 교과교육은 국민학교 각 교과의 교육 내용 및 지도 방법을 다룬다. 심화과정은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학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업교육 및 초등교육 중의 하나를 선택·이수케 함으로써 국민학교 특정 교과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것이다. 심화과정의 내용은 교과교육 연구와 교과내용 연구 및 졸업논문으로 구분하며, 선택한 심화과정과 동일한

각 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교육 과목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교육실습은 관찰·참가·수업·실무 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무실습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심화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실습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선택과정은 소속 심화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서 10개 심화과정과 교양영어 과정에서 각각 3개 과목씩 개설하며, 학생들은 학기마다 한 과목씩 3개 과목을 이수케 되어 있다.

3. 새로운 發展方向의 탐색:

大學院 設立 추진

우리나라 초등교사들은 넓은 시야에 서서 심오한 학식을 갖추고 초등교육에 관한 이론과 응용 및 교육현장에서의 고도의 교육·연구 능력을 두루 갖추하고자 이미 상당수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다수 교사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추세에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한국 초등교육의 중심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교육대학에서 初等教育 및 初等教科教育 專門家を 양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켜 초등교육만을 위한 대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여 개의 대학에 수많은 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초등교육에 관한 새로운 敎育科學(이론바 학교 교육학 등)의 체계적 연구와 초등 교과교육을 전적으로 맡아서 연구·연찬할 대학원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은 초등교육이나 초등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교과교육에 관한 대학원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극소수의 대학교도 있으나, 이들 대학교의 대학원은 아쉽게도 모두 중등교육 중심이며 초등교육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 성과는 거의 없는 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대학원 설치를 위한 基盤 條件은 매우 건실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2

년제 교육대학이 1962년부터 설립되어 초등교육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고, '81년에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어 초등교육 내지 초등 교과교육에 관한 학문적 축적이 단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초등 교과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울교육대학의 경우 전임교수 가운데 예체능계를 제외한 교수들 중 80% 이상의 교수가 해당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예능계 교수들의 경우도 미술과의 경우 국전 추천작가를 비롯하여 예술적 역량이 뛰어난 뿐 아니라 예술교육에도 최정상급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음악과에서도 외국에서 음악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도 있으며 체육과도 탁월한 지도 능력을 구비한 교수들로 짜여져 있다.

우리 대학에서 구상하고 있는 초등교육을 위한 대학원은 기존의 교육대학원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을 위한 교육대학원의 교과 교육학과와는 그 교육 내용이 판이하게 구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학원의 構成이나 敎育課程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학원은 크게 초등 교육학과 초등 교과교육학의 두 계열로 나누어 모집하려고 하고 있다. 초등 교육학은 다시 그 학문적 성격에 따라 3~4개 하위 전공영역으로 나누고, 초등 교과교육학은 국민학교 교과에 따라 10개 안팎의 하위 전공영역으로 나눌 계획이다.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전체공통과목, 계열공통과목, 전공공통과목, 전공전문과목 등으로 편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전체공통과목은 초등교원으로서의 폭 넓고 공통된 고도의 전문성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것, 교육의 조직·운영에 관한 것, 교수-학습 조직에 관한 것 등인데, 예상되는 강좌명은 '초등교육의 인간학적 기초', '인간의 성장과 초등교육의 이념', '초등교수-학습의 시스템' 등이다.

계열공통과목은 초등교원의 전문적으로서의 특성을 뒷받침하는 전문적 교양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전공의 구분을 뛰어넘는 것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강좌명은 초등교육학 계열의 경우 ‘초등교육제도론’, ‘초등교육방법론’, ‘초등생활지도론’ 등이고, 초등교과교육학 계열의 경우 ‘아동의 언어 발달과 지도’, ‘현대 사회의 제 문제’, ‘수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 ‘예술 사조와 전망’ 등이다.

이와 같이 초등교육만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될 경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성과는 심오한 학문적 기반을 튼튼히 다진 초등교육 전문가와 초등교과교육 전문가를 양성·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직 국민학교 교사들의 초등교육 내지 초등교과교육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교육대학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과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한층 더 증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4. 21세기 교육을 준비하는 대학:

초등교육의 質的 深化와 活性化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한국 초등교육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직 활동에 임하는 사명감을 지닌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 온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더욱 현실감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21세기 교육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는 학교라는 교육적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事實과 現象에 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과정을 교원양성대학으로서의 당초 목적에 맞게 탄실하게 운영할 뿐 아니라 현재의 부설연구소나 부설기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가올 21세기 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초등교육의 질적 심화와 초등교육의 마당이 더욱 즐겁고 활기찬 교육의 마당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학생생활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소 등이 부설되어 있어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뿐 아니라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닦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이

밖에 장기적으로 실기교육 연구센터, 초등교육자료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효율적 대학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교직에 종사할 사람으로서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학급 경영자로서의 문제 해결력 신장, 특기를 지닌 교사가 되기 위한 개성등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실태조사 및 심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 저널 『학생지도연구』도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과학교육연구소는 국민학교 과학 및 수학 교육과정의 연구와, 학습지도 방법 및 교육자료를 연구·개발함으로써 과학 및 수학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동 연구소에서는 올해에도 우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논문 발표대회를 비롯하여 서울 시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연구 저널 『과학과 수학교육 논문집』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초등교육연구소는 초등교육과 초등교원교육에 관한 학술 연구의 조사 연구를 통해 초등교원교육 및 현장교육의 개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 연구소는 초등교육 및 초등교과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하여 教育大學이 어떠한 位相을 지녀야 할지에 관해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연구 주제는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등교원의 위상 정립’에 관한 세미나를 비롯하여 초등교육 자료집 『국민학교 교과교육의 연구 동향』, 『국민학교 사회과교육의 개선방향』 발간, 연구보고 『국민학교 저학년 교수방법의 개발과 적용』, 『국민학교 국어과 저학년 교수방법의 개발과 적용』의 발간 및 연구 추진, 특별연구 과제로 ‘도덕과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민학교 교사 임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등 많은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교육대학이 21세기 교육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관해 초등교육 자체에 관해 혹은 초등교과교육의 분야마다에 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스레터 『초등교육』을 통해서 ‘초등교육의 전문성’, ‘국어과교육의 반성’,



▲ 서울교대는 敎師 專門性과 전인적 인격을 갖춘 敎育者 양성을 위해 自己革新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사회과교육의 과제’, ‘과학과 학습지도 방법의 검토’, ‘체육과의 학습 지도’ 등을 특징으로 다루었거나 준비하고 있다.

국민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기교과에 관한 실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실기교육 연수센터를 개설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 음악·미술·체육·어학 등에 관한 실기교육의 현황 연구 및 지도방법의 개발과 함께 학생 개개인에게 실기에 관한 自學自習의 마당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교육에서의 실제적·기술적 능력, 실기지도 능력 등을 배양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실기교과에 관한 학점을 그다지 높게 개설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악기나 운동 실기능력을 제대로 다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학과 강의시간 후 오후나 밤에 음악·미술·체육·어학·해크리에이션 지도법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대학 부설기관을 개설하고자 한다.

초등교육 자료센터는 국민학교 교사들이 효과

적인 학습지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각종 자료의 개발과 공급을 위해 개설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한 교육과정, 동일한 교재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지역간·학습집단간 학력 격차에 따른 지도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교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순한 교재·교구 개발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발전 교재와 보충 교재 등의 개발과 아울러 교육과정의 발전적 재해석을 통해 초등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사들에게 유익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자 한다.

초등교육의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는 “그 나라의 미래는 敎育에 있고, 敎育의 질은 敎師의 質에 달려 있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교원양성대학으로서 다가올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